

중

문



#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 2008년 세계경제는 금융시장 불안, 주택시장 침체,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 (미국) 금융 불안, 주택시장 문제, 고유가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가능성으로 경제성장 둔화 전망
  - 2009년 금융 및 주택시장 불안이 해소되면서 美 경제 반등 예상

<표 1-1> 미국 실질 GDP 전망<sup>1</sup>

(단위: %)

	2007	2008	2009
연준(Federal Reserve)			
Range <sup>2</sup>	2.2-2.7	1.6-2.6	2.0-2.8
Central Tendency <sup>3</sup>	2.4-2.5	1.8-2.5	2.3-2.7
CBO	2.5	1.5	3.3
Blue Chip Consensus	2.6	2.0	2.9

- 주: 1. percent change, fourth quarter to fourth quarter(전년도 4분기에서 당해연도 4분기까지의 퍼센트 변화율)  
 2.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모든 전망을 반영(전망의 최고치와 최저치 포함)  
 3. FOMC 위원 전망의 최고치 3개와 최저치 3개를 삭제한 후 남은 그룹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포함

자료: Federal Reserve(2007.10),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08. 1), Blue Chip Economic Indicators(2008. 1)

- (유로지역) 고금리, 유로화 강세 지속 및 신용경색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될 전망이나, 잠재성장을 지속 전망
  -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인한 가계소득과 민간소비 확대가 성장을 주도

- **(일본)** 임금상승\*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 기업투자 및 수출호조 지속으로 2009년까지 연간 1.5~2.0%의 경제성장 전망

\* 비정규직 비중 감소와 고임금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임금하락의 구조적 요인 쇠퇴

- **(신흥국가)**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가등의 양호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편, IMF는 美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감안하여, 2008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4.1%로 하향 수정 발표('08.1월)

- 세계경제 둔화 전망의 주요 원인은 금융시장 불안이 주요 선진국 내수의 추가적 감소를 초래하고, 그 여파가 신흥시장국가에 미칠 가능성에 기인

<표 1 -2>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7	2008
			추정치	전망치	'07.10월	전망치
<b>세계경제</b>	<b>4.4</b>	<b>5.0</b>	<b>4.9</b>	<b>4.1</b>	<b>5.2</b>	<b>4.8</b>
<b>선진국</b>	2.5	3.0	2.6	1.8	2.5	2.2
미국	3.1	2.9	2.2	1.5	1.9	1.9
유로지역(15)	1.5	2.8	2.6	1.6	2.5	2.1 <sup>1)</sup>
일본	1.9	2.4	1.9	1.5	2.0	1.7
기타 선진국	3.2	3.7	3.8	2.8	3.7	3.1
<b>신흥시장국가</b>	7.0	7.7	7.8	6.9	8.1	7.4
아프리카	5.9	5.8	6.0	7.0	5.7	6.5
중앙유럽/동유럽	5.6	6.4	5.5	4.6	5.8	5.2
아시아 개도국	9.0	9.6	9.6	8.6	9.8	8.8
중국	10.4	11.1	11.4	10.0	11.5	10.0
중동	5.6	5.8	6.0	5.9	5.9	5.9

주: 1) 유로지역(13):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An update of the key WEO projections, 2008.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7.10)

□ 국제 경제의 부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경기둔화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

① 서브 프라임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주택시장 및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관망세

- 미국 주택시장 악화가 민간소비를 하락시킬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
- 미국은 주택가격 하락과 더불어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지출 위축 가능성 증대
- 주택대출 관련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이 신용경색을 초래해 민간 투자 위축 우려

②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 중국 등 신흥시장의 수요 증가, 지정학적 요인, OPEC의 감산 및 달러약세 등으로 최근 원유가격 급등
- 지속적인 신흥 시장의 수요증가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향후 몇 년간 고유가 지속 전망
- 식료품 및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유발

③ 글로벌 불균형

- 최근 지속적인 달러 약세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대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
- 향후 환율이 안정적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

<표 1-3> 주요국 경상수지 전망

(단위: 10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	-755	-811	-769	-775	-794
(GDP 대비 %)	-6.1	-6.2	-5.6	-5.4	-5.3
일본	166	171	206	229	254
유로지역	28	-2	18	-13	-22
중국	161	250	361	431	518
아프리카/중동	216	258	223	281	204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2

□ 통화정책은 각국의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상이

-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실물경제 파급 가능성으로 2008.1.22일 기준 금리 75bp 인하 후, 同月 30일 추가 50bp 인하(4.25% → 3.5% → 3%)
-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이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선으로의 하락이 전망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없을 전망
- **(일본)** 물가상승률이 확고하게 (+)로 전환될 때까지는 금리는 현수준 유지

## 참고 1

## 2008년 아시아 경제전망

- 2008년 아시아 및 신흥시장국가들의 경제성장세는 견조하지만, 美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영향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인도의 강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 및 이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둔화가 예상
  -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의 대미 수출은 GDP의 약 20% 이상 차지하여 미국 경제침체 영향 불가피
    - 홍콩 25.2%, 싱가포르 20.4%, 말레이시아 19.3%(2006년 기준)
- 수출타격 이외에도, 미국의 경제문제는 다양한 금융 채널을 통하여 아시아에 영향을 줄 가능성 존재
  - 아시아 은행들의 서브 프라임 사태에 노출된 정도는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글로벌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처분으로 주식시장이 더욱 악화된다면 아시아 지역의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 하락 가능성 존재
- 아시아권 국가는 美 경기 둔화와 함께 원유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통화절상 등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
  - 미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정책이 아시아 지역의 통화가치 상승을 유발→수출, 고용 및 소비 둔화 등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 그러나, 내수 호조 및 건전한 재정상황이 아시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뒷받침
  - 2007년 미국의 수입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은 민간소비 및 투자 호조로 성장세 유지
    - 말레이시아는 대미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은 2006년말 5.7%에서 2007년 3/4분기 6.7% 기록
  - 동아시아의 높은 외환보유고와 건전한 재정 상황은 외부충격 경감과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정책 추진 여지를 부여

## 참고 2

##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

### (1)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 □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추이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수익률이 높아 헤지펀드, 은행, 보험사 등 세계의 여러 금융업체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
-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 및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연체율과 주택압류가 급증
  - '07.2월 HSBC, 2006년 모기지 사업 관련 손실 규모(105억 6,000만달러) 발표
  - '07.4월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New Century Financial) 부도 처리
-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상품에 투자했던 헤지펀드, 세계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확산
  - '07.8월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은행은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22억 달러에 달하는 3개 자산유동화증권(ABS)펀드에 대한 자산 가치평가 및 환매를 일시 중단
  - '07.9월 영국의 5대 모기지 은행인 노던록(Northern Rock) 파산위기로 영국에서도 모기지관련 금융부실문제 가시화
  - '07.10월 중순 이후 씨티그룹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관련 손실규모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신용시장 불안이 재확산

**참고 2****서브프라임 사태 여파(계속)****(2) 국제 금융시장 타격과 각국의 대응**

□ 서브프라임 사태는 특히 미국과 유로지역 금융시장에 동시 다발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신용경색 심화 우려

○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을 받는 국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미국, 영국 등의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 존재

**<표 1-4> 가계부채 비중**

(단위: 명목 가치분 소득 대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b>영국</b>										
가계부채	104.8	107.3	110.9	114.2	118.1	130.2	141.4	153.1	154.6	163.8
모기지 비중	76.7	78.2	80.9	83.2	86.0	94.4	104.4	114.4	116.1	125.0
<b>미국</b>										
가계부채	96.1	97.1	101.4	102.7	106.8	112.1	120.2	126.8	134.4	138.1
모기지 비중	64.1	64.9	67.8	68.5	72.6	78.4	85.7	92.2	100.2	103.1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2

○ 구조적인 성격상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 및 주택시장이 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모기지 관련 손실규모는 '07.10월 IMF가 발표한 추정치를 근거로 대략 2,000억 달러로 예상되었으나, 이후 손실규모 추정치는 OECD 3,000억 달러, 골드만삭스 4,060억 달러 등으로 계속 증가
- 앞으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기관들의 추가 상각(write down)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투자손실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참고 2

##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계속)

### (2) 금융시장 타격과 각국의 대응(계속)

□ 美 정책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심화와 이에 따른 신용시장 불안 증대에 대처하여 금융안정 노력을 적극 강화

○ '07.12.12일 미국, 유로지역,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 5개국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 유동성 공급확대 방안 발표

○ '08.1월 미국정부와 의회가 1,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확정 · 발표  
- 소득세 1인당 600달러 환급, 법인세 약 500억 달러 감면

○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의 실물경기 파급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하강에 대한 대응으로 기준금리 인하

- 美 기준금리(%): ('07.09.18) 4.75 → ('07.10.31) 4.50 → ('07.12.12) 4.25  
→ ('08.01.22) 3.50 → ('08.01.30) 3.00 → ('08.03.18) 2.25

- 재할인율(%): ('07.08.17) 5.75 → ('07.09.18) 5.25 → ('07.10.31) 5.00 →  
→ ('07.12.11) 4.75 → ('08.01.22) 4.00 → ('08.01.30) 3.50  
→ ('08.03.16) 3.25 → ('08.03.18) 2.50

□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불안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美 경기침체 및 이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

## 2. 주요국 재정정책 동향

- 최근 몇 년간 일본, 독일, 미국 등 국가에서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는 주로 재정수입 증가에 기인
  - 재정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 증가에 기인하며,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에서는 개인소득세 증가 역시 세수 증대에 기여
- 그러나 주요국의 재정수지 개선은 지연될 전망
  - (미국) 법인세 감소와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 전망
  - (일본) 최근 기초재정수지의 개선이 있었으나 일본정부의 FY 2011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 통합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불충분
  - (유로지역) 유로지역의 전반적인 재정수지 개선 전망

**<표 1-5> 주요국 재정수지 및 부채비율 전망**

(단위: 명목 GDP 대비 %, 잠재 GDP 대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	재정수지	-3.6	-2.6	-2.8	-3.4	-3.5
	총부채	62.4	61.9	62.2	63.8	65.5
일본	재정수지	-6.4	-2.9	-3.4	-3.8	-3.4
	기초재정수지 <sup>1)</sup>	-4.4	-4.0	-3.2	-3.0	-2.5
	총부채	177.3	179.7	180.3	181.6	183.3
유로지역	재정수지	-2.5	-1.6	-0.7	-0.7	-0.6
	총부채	76.9	74.8	72.4	71.2	70.0

주: 1) Underlying cyclically-adjusted primary balance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2

- 대다수 국가에서는 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화 노력 필요
  - 주요국에서는 최근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법인세 증가에 의해 재정상황 개선
  - OECD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요인보다는 지출관리에 중점을 두고 노력할 것을 권고

<표 1-6>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단위: GDP 대비 %)

	91-00 평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2
<b>주요 선진국</b>										
재정수지	-3.0	-1.7	-4.0	-4.8	-4.2	-3.5	-2.7	-2.4	-2.6	-2.1
구조적 재정수지 <sup>1)</sup>	-2.8	-1.9	-3.8	-4.3	-4.0	-3.3	-2.6	-2.2	-2.3	-2.1
<b>미국</b>										
재정수지	-2.2	-0.4	-3.8	-4.8	-4.4	-3.6	-2.6	-2.6	-2.9	-2.6
구조적 재정수지 <sup>1)</sup>	-2.2	-0.7	-3.7	-4.6	-4.3	-3.7	-2.7	-2.4	-2.5	-2.6
순부채	49.4	35.6	38.4	41.4	43.2	44.2	44.1	45.0	46.7	51.0
총부채	65.4	53.7	56.1	59.4	60.4	60.9	60.2	60.8	62.2	65.8
<b>유로지역</b>										
재정수지	-3.8	-1.9	-2.6	-3.1	-2.9	-2.6	-1.6	-0.9	-1.1	-0.8
구조적 재정수지 <sup>1)</sup>	-3.3	-2.2	-2.5	-2.6	-2.4	-1.9	-1.2	-0.8	-0.9	-0.7
순부채	56.9	58.5	58.5	59.8	60.3	60.9	58.9	57.0	55.9	51.6
총부채	69.2	68.3	68.2	69.3	69.7	70.4	68.6	66.6	65.4	60.5
<b>독일</b>										
재정수지	-2.2	-2.8	-3.7	-4.0	-3.8	-3.4	-1.6	-0.2	-0.5	-0.5
구조적 재정수지 <sup>1)</sup>	-2.0	-2.6	-2.9	-3.0	-2.9	-2.5	-1.2	-0.4	-0.7	-0.5
순부채	43.6	52.1	54.3	57.7	60.0	61.7	60.2	58.1	56.9	54.6
총부채	52.4	57.9	59.6	62.8	64.7	66.3	66.0	63.7	62.3	59.4
<b>프랑스</b>										
재정수지	-3.8	-1.5	-3.1	-4.1	-3.6	-3.0	-2.5	-2.5	-2.7	-1.3
구조적 재정수지 <sup>1)</sup>	-2.9	-2.1	-3.1	-3.4	-3.1	-2.7	-1.9	-1.7	-2.0	-1.2
순부채	42.8	48.2	49.1	53.2	55.3	57.0	54.4	53.6	53.7	50.8
총부채	52.0	56.9	58.8	62.9	65.0	66.7	64.1	63.3	63.4	60.5
<b>이탈리아</b>										
재정수지	-6.3	-3.1	-2.9	-3.5	-3.5	-4.2	-4.4	-2.1	-2.3	-2.5
구조적 재정수지 <sup>1)</sup>	-6.0	-3.8	-3.9	-3.3	-3.4	-3.5	-3.9	-1.8	-2.0	-2.5
순부채	108.3	105.2	102.1	101.5	100.9	103.1	103.1	101.7	101.1	98.4
총부채	113.8	108.7	105.6	104.3	103.8	106.2	106.8	105.3	104.7	102.0
<b>일본</b>										
재정수지	-3.8	-6.3	-8.0	-8.0	-6.2	-4.8	-4.1	-3.9	-3.8	-2.9
- 사회보장 제외	-5.6	-6.5	-7.9	-8.1	-6.6	-5.1	-4.1	-3.8	-3.9	-3.8
구조적 재정수지 <sup>1)</sup>	-3.8	-5.7	-7.0	-7.0	-5.7	-4.5	-4.0	-3.8	-3.8	-2.9
- 사회보장 제외	-5.6	-6.2	-7.3	-7.6	-6.3	-4.9	-4.0	-3.8	-3.8	-3.8
순부채	31.7	66.3	72.6	76.5	82.7	84.0	87.1	89.8	92.1	95.0
총부채	100.2	151.7	160.9	167.2	178.1	191.4	193.1	194.4	194.9	189.6
<b>영국</b>										
재정수지	-3.4	0.9	-1.8	-3.5	-3.4	-3.3	-2.7	-2.5	-2.3	-1.4
구조적 재정수지 <sup>1)</sup>	-2.3	-0.1	-1.9	-3.0	-3.6	-3.2	-2.7	-2.5	-2.2	-1.3
순부채	34.0	32.5	32.5	34.2	35.9	37.8	38.5	38.4	38.5	37.8
총부채	39.6	38.1	37.7	39.0	40.5	42.4	43.1	43.0	43.1	42.5
<b>캐나다</b>										
재정수지	-3.6	0.7	-0.1	-0.1	0.8	1.6	1.0	0.9	0.9	0.6
구조적 재정수지 <sup>1)</sup>	-3.4	0.4	-0.2	0.2	0.9	1.5	0.9	0.9	1.0	0.5
순부채	61.0	43.7	42.6	38.6	34.4	30.1	27.6	25.1	23.2	16.7
총부채	105.2	91.5	89.4	85.2	80.2	78.4	73.5	68.4	64.7	51.3

주: 1) 잠재 GDP 대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7.10

##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 1. 미국 (FY 2009: 2008.10 ~ 2009. 9)

총지출 3조 1,070억 달러 규모의 FY 2009 예산안은 국방, 외교, 국토안보 분야에 중점지원하고, 의료·복지 비용은 감축하는 계획이 주요 특징

#### □ 경제 및 재정전망

- 2008년 미국경제는 주택시장 둔화와 금융불안,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하강국면으로 들어설 전망
- 부시행정부는 성장 친화적 정책, 복지부문 법정지출 개혁 등을 통해 2012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제시

<표 II-1> 미국 경제 전망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질 GDP 증가율	2.7	3.0	3.0	2.9	2.8	2.8
소비자물가지수(CPI)	2.7	2.1	2.3	2.3	2.3	2.3
실업률	4.9	4.9	4.8	4.8	4.8	4.8
91일 만기 국채 수익률	3.7	3.8	4.0	4.1	4.1	4.1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4.6	4.9	5.1	5.2	5.3	5.3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09, OMB, 2008. 2

<표 II-2> 미국 재정 전망

(단위: GDP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수입	17.6	18.0	18.6	18.6	18.8	18.8
재정지출	20.5	20.7	19.6	19.1	18.5	18.6
재정수지	-2.9	-2.7	-1.0	-0.6	+0.3	+0.2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09, OMB, 2008. 2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FY 2009 예산안은 국방 및 국토안보, 경제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2012년 균형예산 달성을 목표로 하여 작성

① 경기 둔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 2008. 1월 소비진작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경기부양책 포함
- 주택차압(Foreclosure)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주택시장 안정에 노력

② 지속적인 경제발전 확보

-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감세정책 영구화
- 민간 시장 육성 및 경쟁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의료보장제도 개선
- 수입 석유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③ 국방, 국토안보, 외교

- 국방분야 지원, 국토안보 및 테러 방지 강화
- 외교, 해외 개발원조 및 재건활동 등을 통한 평화와 민주주의, 경제적 기회의 세계적 증진 도모

④ 2012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정책 및 정부지출 억제 정책 유지
  - 복지부문 법정지출 개혁 노력 지속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지출관리
  - 지정예산(earmark)\* 관행 척결 노력
- \* 끼워넣기 식 예산으로 지정예산의 대부분은 정식 법안이 아닌 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되어 의회표결이나 대통령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 2009 재정수입 2008년 대비 7.1% 증가한 약 2조 7천억 달러 전망
- 총지출 3조 1,070억 달러 규모의 FY 2009 예산안은 국방, 외교, 국토안보 분야에 중점지원하고, 의료·복지비용은 감축하는 계획이 특징

- (국방) 2008년 예산안(4,814억) 대비 7.1% 증가한 5,154억 달러이며, 이 외 對테러전 전비 700억 달러를 별도 요청한 상태
- (외교) 외교 및 해외 개발원조 지원을 위해 국제관계 업무에 예산 14.9% 증가
- (국토안보) 2008년에 비해 10.7% 상승하였으며, 주로 국경단속과 공항 통 관수속에 예산 대폭 증액
- (의료·복지) FY 2009 예산안은 복지부문 법정지출 개혁을 통해 5년 동안 2,080억 달러 절감

**<표 II-3> FY 2009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국방	국토안보	외교	Medicaid and Medicare	사회보장
16.6 <sup>1)</sup>	1.2	1.2	20.1	20.7

주: 1) 對테러전 전비 추가 요청금액 700억 달러 불포함  
 자료: 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09

□ 세제개편

-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공제 혜택 및 AMT(Alternative Minimum Tax)공제 관련 한시법 연장
  - 주거용 주택 소유자 중 모기지 빚이 최대 2백만 달러를 넘지 않는 사람에게 한해 탕감 부문에 대해 한시적(2007. 1. 1~2009.12.31)으로 세금 면제
  - 비환급 세액공제(nonrefundable personal credit)에 대한 AMT 공제를 2007 과세연도까지 연장

## 2. 캐나다 (FY 2007-08: 2007. 4 ~ 2008. 3)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연방정부 부채를 상환하여 재정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전망

### □ 경제 및 재정전망

- 캐나다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실질GDP 성장률이 2008년 2.4%, 2009년 2.7% 전망
- 재정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비율을 2012-13년 23.1% 수준까지 낮출 계획

**<표 II-4> 캐나다 경제 전망**

(단위: %)

	2007	2008	2009	2010-12 평균
실질 GDP 증가율	2.5	2.4	2.7	2.8
GDP inflation	3.3	2.4	2.0	1.6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	4.2	4.4	4.7	4.6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4.3	4.6	5.0	5.0

자료: Economic Statement, 2007.10.30

**<표 II-5> 캐나다 재정 전망**

(단위: GDP대비 %)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세입	15.9	15.3	15.2	15.2	15.1	15.1
세출	15.2	15.0	14.9	14.7	14.6	14.4
재정수지	0.7	0.3	0.3	0.5	0.5	0.7

자료: Economic Statement, 2007.10.30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 더 나은 캐나다 (Better Canada)
  - 자연환경 보호, 건강관련 지원 강화, 문화보전 지원, 캐나다인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 강화
- 재정수지 강화 (Restoring Fiscal Balance)
  - 재정 균등화와 지방 재정지원 방식 개선, 연방정부 부채감소 및 세금환급 보장법 등 재정균형 회복을 위해 노력
- 더 강한 캐나다 (A Stronger Canada)
  - 탄탄한 기반시설 구축, 학문 증진, 무역 등 투자 지원
- 더 안전한 캐나다 (A Safer Canada)
  - 국방 및 안보, 질병 대비 지원, 국제협력 지원 강화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2007-08년 회계연도의 총세입은 전년대비 3.4% 증가하여 2,439억 캐나다달러 전망
- 프로그램 지출은 2007-08년 전년대비 5.4% 증가하여 1,984억 캐나다달러 전망
- 프로그램 총지출 중 노령연금은 16.1%, 보건·의료 외 기타 사업에 관한 지출 15.8% 차지

**<표 II-6> FY 2007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노령연금	고용보험급여	보건·의료 외	아동혜택지원
16.1	7.3	15.8	6.0

자료: Economic Statement, 2007.10.30

□ 세제개편

-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기초공제액수 인상
- 재화 및 용역세(GST) 1%p(6% → 5%) 인하 (2008.01.01 시행)
- 법인세율 2012년까지 22.1% → 15%로 인하
- 소기업체 소득세율 인하계획을 앞당김: 13.12%(2007년)→11.0%(2008년)
- Budget 2007을 통해 세금환급보장법(Tax Back Guarantee)을 입법함
  - 연방정부는 매년 국가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이전에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금액으로 배정됐던 예산이 여유 예산으로 남음에 따라 이 여유 예산을 세금환급으로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계획

### 3. 일본 (FY 2008: 2008. 4 ~ 2009. 3)

FY 2008 예산안은 세출개혁 강화방침으로 지출삭감과 제도개선을 실시하며, 경제성장 증진과 국가채무 해결 등에 중점을 둠

#### □ 경제 및 재정전망

- 2003년 이후 경기회복과 지속적 성장세를 계기로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였으며 중장기 재정건전화 목표 추진
  - GDP대비 국가채무액 비율을 안정적으로 인하시키면서 기초재정수지를 2011년까지 흑자화한다고 목표 설정

**<표 II-7> 일본 경제 전망**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실질 GDP 증가율	1.4	2.7	1.9	2.2	1.9	1.6	1.8
소비자물가지수(CPI)	-0.2	0.0	-0.6	0.2	0.0	0.3	0.4
3개월 CD 금리	0.0	0.0	0.0	0.2	0.7	0.6	0.9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0	1.5	1.4	1.7	1.7	1.9	2.4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2, 2007.12

**<표 II-8> 일본 재정 전망**

(단위: GDP대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일반정부 세입	30.5	30.9	31.7	33.7	33.1	32.8	33.0
일반정부 세출	38.4	37.0	38.2	36.6	36.5	36.5	36.5
일반정부 재정수지	-7.9	-6.2	-6.4	-2.9	-3.4	-3.8	-3.4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	-6.6	-5.0	-5.6	-2.1	-2.5	-2.9	-2.3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2, 2007.12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출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삭감하며, 「기본방침 2007」에 따라 예산 중점 배분 및 효율화 등 재정개혁 단행
  - 지출삭감: 공공사업, 지방재정,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서 세출 삭감
  - 예산배분 중점화: 성장력 강화, 지역활성화, 국민생활의 안심·안전, 환경, 공교육 확립 등 분야에 예산 중점 배분
  - 예산의 효율화: 수의계약 재검토, 예산집행조사 결과 및 회계검사원 지적 사항의 적극 반영, 특별회계의 재검토 등을 통해 예산 효율화 도모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국채발행액은 0.84조엔 감소하였으나 조세수입 및 기타수입이 약 2.37조엔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약 1.53조엔(0.2%) 증액
- 일반세출예산에서 지방특례교부금·지방교부세교부금·중소기업대책비 등은 증가한 반면 공제연금관계비·국채비·공공사업관계비 등은 감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0.2%(약 1.53조엔) 증액

**<표 II-9> FY 2008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국방	교육	과학	사회보장
10.2	8.4	2.9	45.0

자료: Ministry of Finance Japan, 『Highlights of the Budget for FY 2008』, 2007.12

□ 세제개정

- 법인·중소기업관련세제, 금융·증권세제, 토지·주택세제 등 개정을 통해 '08년도 세수 40억엔 감소 전망

#### 4. 프랑스 (FY 2008: 2008. 1 ~ 2008. 12)

재정건전화를 위한 강력한 정부지출 통제하고 부채감소를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

□ 경제 및 재정전망

- 프랑스 정부는 2008년 내수경기의 호조와 사르코지 정부의 구조적 개혁의 영향으로 2~2.5%의 성장률을 예상
- OECD는 2008년 실질GDP 증가율 2% 이하로 평가하고 있으나 프랑스 정부는 이를 너무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보고 있음
- 정부부채 감소와 정부지출의 엄격한 통제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표 II-10> 프랑스 경제 전망**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실질성장률		2.0	2.0~2.5	2.0~2.5	
실질 GDP 증가율	1.7	2.2	1.9	1.8	2.0
HICP <sup>1)</sup>	1.9	1.9	1.5	2.2	1.9
3개월 은행간 금리 <sup>2)</sup>	2.2	3.1	4.3	4.2	4.1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3.4	3.8	4.3	4.3	4.4

주: 1)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의 약어로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 나타냄

2) EURO Area Rate과 동일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2, 2007.12,

실질성장률은 Les chiffres clés 1 page 참조

<표 II-11> 프랑스 재정 전망

(단위: GDP대비, %)

	2005	2006	2007	2008	2009
일반정부 세입	50.7	50.8	50.5	50.1	49.7
일반정부 세출	53.7	53.3	53.0	52.7	52.3
일반정부 재정수지	-3.0	-2.6	-2.5	-2.6	-2.6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	-0.6	-0.2	-0.2	-0.4	-0.4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2, 2007.12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 2008년 예산안은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안인 2007년 8월 일자리, 고용 및 구매력 증진을 위한 법률의 실현이 핵심
  - 정부지출의 강력한 통제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원동력 강화
  - R&D 투자 및 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기반 강화
    - 이러한 개혁안을 지지하기 위해 세제개편 및 지원을 통해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는 수요중심 정책 실시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2008년 순재정수입은 2007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여 총 2,721억 유로 전망
- 2008년 예산지출은 2,718억 유로 전망
  - 각 분야별 예산지출은 2007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게 책정
  - R&D와 안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

**<표 II-12> FY 2008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국방	안전	교육	고등교육 및 R&D	노동(취업)
13.5	5.9	21.8	8.6	4.5

자료: Les chiffres clés 8 page를 참조해서 작성

□ 세제개편

- R&D 관련 세금감면 확대
- 주택관련 과세 축소를 통해 가계의 구매력 증대
-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경감 및 면세, 고용관련 보조금 한도 인상 등 완전고용 추구

□ 기타

- 사르코지 정부의 '작은 정부'를 지향으로 대대적인 공무원 인원 감축
  - 공무원 인력 감축으로 4억 58백 유로를 절감 및 각 부처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
  - 퇴직자 2인당 1인 충원을 통해 공무원 인원을 2008년 중 약 22,900명 감축할 예정이며, 이는 2007년 공무원 총인원의 1%에 해당 (단, 법과 R&D 분야 제외)

## 5. 독일 (FY 2008: 2008. 1 ~ 2008. 12)

총 2,832억 유로로 편성된 FY 2008년 연방정부 예산안은 R&D·교육 및 과학부문, 개발원조, 치안 및 국제안보 분야에 집중 지원

### □ 경제 및 재정전망

- 2008년 독일 경제는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출둔화 및 투자약화 등으로 성장 모멘텀 다소 약화
- 최근의 경기 호조와 직접세의 견고한 증가, VAT 세율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입 등으로 재정상황은 대폭 개선 전망
  - 재정수지는 독일정부의 전망보다 빠르게 2007년 흑자로 돌아설 전망
  - 2008년 재정수지는 법인세 인하 영향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안정 및 성장 협약(SGP) 중 재정적자 비율은 준수될 전망

**<표 II-13> 독일 경제 전망**

(단위: %)

	2005	2006	2007	2008
GDP 증가율	0.8	2.9	2.6	2.2
CPI	2.0	1.7	2.1	2.0
실업률	11.1	10.3	8.7	7.9
서독	9.4	8.7	7.2	6.4
동독 및 베를린	17.8	16.5	14.4	13.7

자료: 독일 경제전망 그룹, Joint Economic Forecast Autumn 2007, 2007.10

**<표 II-14> 독일 재정 전망**

(단위: GDP대비, %)

	2005	2006	2007	2008	2009
일반정부 수입	43.5	43.8	43.9	43.2	43.0
일반정부 지출	46.9	45.4	43.8	43.3	42.8
일반정부 재정수지	-3.4	-1.6	0.1	-0.1	0.2

자료: EU 집행위원회, Economic Forecast Autumn 2007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 FY2008 연방예산 및 중기재정계획 2007~2011(Financial plan of the Federation 2007~2011)은 재정건전화와 미래분야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작성
  - (재정건전화) 연방정부의 부채규모 감축 및 2011년까지 신규 부채 없는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
  - (미래분야 강화) 미래지향적 재정정책으로 **교육 및 R&D 분야 예산 중점 지원**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2008년 조세수입은 최근의 경기호황에 따른 세입증대 기대가 반영되어 2,371억 유로 예상(2007년에 비해 166억 증가한 규모)
- 2008년 연방정부 재정지출은 2007년 대비 4.7%(약 127억 유로) 증가된 총 2,832억 유로로 편성
  - R&D·교육 및 과학부문, 개발원조, 치안 및 국제안보 분야에 중점 지원

**<표 II-15> FY 2007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R&D·교육 및 과학부문	개발원조	치안 및 국제안보 분야	노동 및 사회보장
4.2	1.8	10.2	45.7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7 bis 2011, 2007. 8

## 6. 영국 (FY 2008-09: 2008. 4 ~ 2009. 3)

단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안정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재정수지 적자가 점차 줄어들어 '08-09년 이후 흑자재정 전망

### □ 경제 및 재정전망

- 2008-09년 영국 경제는 2005-06년의 단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률이 2.00~2.50%를 기록할 전망이며, 향후 2.50~3.00%를 유지할 전망
- 2008-09년 경상 재정수지는 2007-08(-0.3%)에 비해 개선된 GDP대비 0.2%로 흑자재정 전망

**<표 II-16> 영국 경제 전망**

(단위: %)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2011
실질 GDP 증가율	1.75	2.75	3.00	2.00~2.50	2.50~3.00	2.50~3.00
소비자물가지수(CPI)	2.25	2.75	2.00	2.00	2.00	2.00
3개월 은행간 금리 <sup>1)</sup>	4.7	4.8	5.9	5.2	5.1	n.a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sup>1)</sup>	4.4	4.5	5.0	4.9	5.1	n.a

주: 1) OECD Economic Outlook 82, 2007.12  
 자료: 영국 『Pre-Budget Report and CSR』, 2007

**<표 II-17> 영국 재정 전망**

(단위: GDP대비 %)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경상 세입	39.2	39.2	39.5	39.7	39.9	40.0	40.2
경상 세출	39.6	39.8	39.8	39.5	39.4	39.2	39.1
경상 재정수지	-0.4	-0.6	-0.3	0.2	0.5	0.8	1.1

자료: 영국 『Pre-Budget Report and CSR』, 2007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 영국국민의 염원 충족(Meeting the aspiration of the British People)이라는 큰 기조아래, ① 거시안정성 유지 ② 공공서비스의 개혁 ③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 ④기회균등 ⑤ 삶의 질 제고 ⑥ 세계평화 유지활동 등 6가지 세부적인 재정목표 제시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2008-09년 경상세입 추정치는 5억8,100만 파운드(GDP 대비 39.5%)
- 총관리지출(TME) = 연간관리지출(AME) + 부처별지출한도(DEL)
  - 총관리지출(TME)은 2008-09년 6억 1750만 파운드로 2007-08년 대비 4.8% 증가
  - 연간관리지출(AME)은 2008-09년 2억 4510만 파운드로 2007-08년 대비 4.9% 증가
  - 부처별 지출상한액(DEL)은 2008-09년 3억 7240만 파운드로 2007-08년대비 4.8% 증가
- 2008-09년 부처별 경상 및 자본 총지출 중 보건·의료, 교육 담당부처가 큰 비중을 차지함

**<표 II-18> FY 2008-09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교육	보건·의료	국방
경상지출	14.5	29.0	10.4
자본지출	12.5	9.8	16.4

주: 부처별 지출한도(DEL) 기준

자료: 영국 『Pre-Budget Report』 (2007.12.05) Annex B : The Public Finance

## 7. 호주 (FY 2007-08: 2007. 7 ~ 2008. 6)

안정된 경제성장과 꾸준한 흑자재정을 기초로 2007-08예산안에서는  
소득세 감면과 사회보장 및 복지 관련 지출을 증가시킬 계획

### □ 경제 및 재정전망

- FY 2007-08 호주경제는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증가와 수출의 가속화로 실질GDP 증가율 3.75% 예상
- FY 2007-08 재정수지는 100억 호주달러의 재정흑자가 예상되며 중기 추계기간동안에도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표 II-19> 호주 경제 전망**

(단위: %)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실질 GDP 증가율	2.50	3.75	3.00	3.00	3.00
소비자물가지수(CPI)	2.75	2.50	2.50	2.50	2.50
고용증가율(Employment)	2.50	1.50	1.25	1.25	1.25

자료: 2007-08 Budget Overview

**<표 II-20> 호주 재정 전망**

(단위: GDP대비 %)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세입	22.8	22.5	22.8	23.1	22.9
세출	21.5	21.5	21.6	21.8	21.8
재정수지(Fiscal balance)	1.2	0.9	1.0	1.2	1.1
현금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1.3	1.0	1.1	1.2	1.0

자료: 2007-08 Budget Overview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 FY 2007-08 예산안은 장기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호주의 장기 경제성장과 재정안정성에 방해가 되는 과제들의 개혁을 추진함
  - 개인소득세제 개편 및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 잠재력 실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국가안보 강화, 육로수송 효율화를 위한 SOC 부문에 대한 지출 등을 포함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 2007-08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4.8%(실질증가율은 2.2%) 증가하여 2,468억 호주달러로 GDP대비 22.5%
- FY 2007-08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6.3%(실질증가율은 3.7%) 증가하여 2,356억 호주달러로 GDP대비 21.5%
  - 호주정부는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의료분야 지출에 큰 비중을 둠
    - 사회보장 및 복지: 약 965억 호주 달러로 총 세출의 40.9% 차지
    - 보건·의료: 약 430억 호주 달러로 총 세출의 18.2% 차지

**<표 II-21> FY 2007-08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국방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및 복지	교통·통신
8.4	7.5	18.2	40.9	1.9

자료: Budget Paper No. 1, 2007-08

□ 기타: FY 2007-08 세제 개편

- 개인소득세제 완화: 세율인하와 기준소득 상향조정

**<표 II-22> 개편된 개인소득세율**

현행 세율 기준 소득구간(A\$)	세율 (%)	2007. 7. 1이후 소득구간(A\$)	세율 (%)	2008. 7. 1이후 소득구간(A\$)	세율 (%)
0 - 6,000	0	0 - 6,000	0	0 - 6,000	0
6,001 - 25,000	15	6,001 - <b>30,000</b>	15	6,001 - 30,000	15
25,001 - 75,000	30	<b>30,001</b> - 75,000	30	30,001 - <b>80,000</b>	30
75,001 - 150,000	40	75,001 - 150,000	40	<b>80,001</b> - <b>180,000</b>	40
150,001+	45	150,001+	45	<b>180,001+</b>	45

주: 굵은 글씨체는 변경된 소득기준을 뜻함.  
 자료: 호주 Budget Paper No. 1, 2007-08

- 저소득층세액공제(LITO) 한도 상향조정(A\$600→A\$750) 확대
- 고령자세액공제(SATO) 한도 상향조정
  - 1인 가구: A\$24,867→A\$25,867
  - 2인 가구: A\$41,360→A\$43,360